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

온라인 수출로 여는 글로벌 경제영토...중기부, 'K-브랜드 수출 전략'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온라인 수출 참여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급증정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K-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전략으로 평가된다.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경제성장 축으로 부상하면서, 온라인 시장은 최신 소비 트렌드를 선도하는 핵심 무대로 자리 잡았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수출 초보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글로벌 창구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미국의 소매면세제도 폐지 등

으로 일부 품목 수출이 타격을 입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커졌다.

정부는 먼저 온라인 수출 생태계의 근간인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장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은 국내 유망 중소 플랫폼을 발굴해 해외 법인 설립, 글로벌 마케팅, 시스템 고도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K-POP 굿즈, 인테리어 소품 등 특화상품을 중심으로 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을 겨냥한 플랫폼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과 플랫폼 간 협업을 강화해 입점, 홍보, 마케팅 등 전 과정에서 정부와 플랫폼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미국·동남아 등 기존 주요 시장뿐 아니라 동유럽, 중남미 등 신규 시장 개척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수출 지원 통합 포털인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를 전면 개편해 모든 온라인 수출 지원사업의 관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은 이 플랫폼을 통해 지원사업 신청, 물류·통관 관리, 수출 애로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K-온라인 수출 전략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하는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온라인 수출 바우처'가 새로 지급돼, 플랫폼 입점부터 마케팅·지식재산권 확보, 물류 서비스 이용까지 필요한 지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나

K-혁신시장단' 파견을 통해 품목별 현지 매칭을 촉진하고, 수출 대상국의 기준에 맞는 제품 현지화 컨설팅도 새롭게 도입한다.

오프라인 진출을 준비하는 온라인 수출기업을 위한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 반대로 국내 오프라인 인기제품의 온라인 수출화를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제품화 사업' 등도 시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물류·통관 문제 해소를 위해 2026년부터 '온라인 수출 전용 물류바우처'를 신설한다. EMS 이용 시 15~30% 할인, 민간 물류사 전용 선적 공간 활용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내 건립 중인 '스마트트레이드허브'가 2026년 말 본격 가동되면, 하루 2만 4천 개 이상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바이오헬스산업진흥원이 전북 수산식품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해양 수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해양수산산업 강화 교두보 마련

바이오진흥원, 전북 수산기업 국내외 판로확대 나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전북 수산식품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해양수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바이오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2025 부산국제수산업엑스포'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2025 수산양식박람회'에 참가해 전북지역 수산식품과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의 우수 제품을 선보였다.

두 전시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산산업 박람회로, 어획·양식·

가공·유통·가치제 등 수산업 전반의 기술과 제품이 집약된 행사다.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수산가공기업 10개사와 함께 '전북 공동 홍보관'을 운영, 지역 기업들의 통합 홍보와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나섰다.

박람회 현장을 찾은 국내외 바이어들과 관람객들은 전북 수산식품의 청정 이미지와 높은 품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일부 기업은 현장에서 즉시 납품 상담과 추가 견적 요청을 받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 김장철 맞이 '한돈' 소비촉진 시식행사 개최

전북농협은 12일 진안군청 앞 광장에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무진장축협과 함께 '김장철 맞이 한돈 소비촉진 시식행사'를 열어 김장철 한돈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안정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 농협 전북본부와 무진장축협이 공동 주관했으며, 이정한 총괄 본부장, 송재근 무진장축협 조합장, 김송규 대한한돈협회 진안지부장,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 및 전북농협 축산사업단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행사장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돈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한 구이 시식을 제공, 소비자들이 직접 맛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산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고 한돈 소비 활성화를 적극 홍보했다.

이정한 본부장은 "김장철을 맞아 국산 돼지고기를 활용한 이번 시식행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장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진안=우태만기자

소상공인 경기 '훈풍'... 10월 BSI, 최근 5년 중 최고치 기록

11월 전망 BSI도 연내 최고치... 연말 경기 회복 기대감 커져

소상공인 체감 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0월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가 79.1을 기록, 최근 5년(2021~202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기동향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는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142004호)다. 수치가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 100 초과면 경기 호전을 의미한다.

10월 체감 BSI는 전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하며 79.1을 기록,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하반기 들어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패키지 등 소비진작 정책의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최근 1년간(2024년 10월~2025년 10월) 흐름을 보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는 소비 위축과 명절비용 부담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상승 전환했다.

특히 8~10월 사이 소비 활성화 정책이 집중되며 가파른 반등세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소프츠·오락 서비스업(+12.5p) △개인 서비스업(+9.5p) △수리업(+7.2p) 등이 큰 폭으로 올랐고, 지역별로는 △울산(+15.2p) △세

종(+11.4p) △전북(+8.6p) 순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부문별로는 판매 실적(+3.8p), 자금사정(+3.2p), 고객수(+2.8p) 모두 개선세를 보였다.

소상공인들이 체감한 11월 경기 전망도 긍정적이다. 전망 경기동향지수(BSD)는 90.7로 전월 대비 3.9포인트 상승,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수리업(+13.5p) △음식점업(+10.3p)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7p)이 상승세를 견인했고, 지역별로는 △울산(+19.8p) △인천(+14.0p) △대구(+9.7p)가 두드러졌다. 부문별로는 판매실적(+5.2p), 고객수(+4.4p), 자금사정(+3.2p) 등 전 부문에서 개선이 확인됐다.

/오상근 기자

전북TP, 산·학·연 기술교류 워크숍 통해 에너지산업 협력 강화

전북테크노파크가 전북권 에너지산업융합단지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TP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지역에서 '에너지산업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술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생에너지 및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간 소통을 확대하고 상호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은 △제주의 에너지자립성 운영 사례 공유 △해상풍력 산업기술 동향 분석 △새만금 에너지산업융합

단지 발전 전략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첫날 참석자들은 국립기상과학원을 방문해 기상·기후 데이터 기반의 재생에너지 활용 기술과 풍황 예측 시스템을 살펴보고, 제주 지역의 에너지 산업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둘째 날에는 한국풍력에너지학회 세션과 기술교류회가 열려 전북권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오상근 기자

딥테크 기술보호 위한 협력체계 강화

전북특구,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연구기관 산업보안협의회' 열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손잡고 딥테크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두 기관은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연구기관 산업보안협의회'를 열고, 첨단 기술유출 방지와 피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혁신기업과 연구기관이 글로벌 기술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기술침해 사례가 급증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지난 6월 12일 열린 1차 협의회에는 23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산업보안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딥테크 기술보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 사례 발표, 기술보호 사각지대 대응방안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기술유출 사전예방', '기술탈취 피해대응', '기술보호 성과확산 솔루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는 총 21건의 우수 사례와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그 중 6건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대상은 '연구기관 딥테크 기술을 활용한 출자회사 국외 조인트 벤처 설립 시 기술보호 검토' 사례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국외 출장자 보안서약서 징구방식 및 교육방법 개선'을 제안한 팀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전북 보안 거버넌스의 초석연구개발 산출물 보호 지침 제정' △'딥테크 연구기관 및 기업을 위한 구독형 연구보안 컨설팅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Deep Tech DAO : 블록체인 기반 연구보안 인센티브 플랫폼' △'딥테크 기술 생명주기 기반 등급별 접근제어 플랫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상근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